

들어가면서.

-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. 하지만, 듣기 싫고, 기분 나쁜 말은 죄(罪)/罪人. (Q. 죄인들이 모인 곳은 교도소/감옥. 교회가 감옥과 같은가? 그래서 교회가기 싫은가?)
- 죄와 종교, 특히 기독교는 불가분의 관계=> 막 1:4//눅 3:3, "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" (βάπτισμα μετανοίας εἰς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). 엄밀히 말해, 세례받은 사람이 기독교인!

1. 죄의 성서적 의미는 "과녁을 벗어났다." 이는 종교적 의미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님.

- 히브리어 (חַטָּא / פָּשָׁע). 특히 상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(반역)죄(פָּשָׁע)로 여겼다(암 1:3ff). 헬라어(ἁμαρτάνω/ ἁμαρτία)도 마찬가지로 => 과녁/길/道에서 벗어남
⇒ 사 20:16,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칠백 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(חַטָּאִי לְיָמִי)
⇒ 잠 19:2,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밭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/헛디딘다(חַטָּאִין)
- 신/하느님에 관련해 "과녁/방향"이 잘못될 때
⇒ 신/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. 당시는 신의 존재가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(시 14:1), 지금은 신의 정체성이 도전받음. (Q. 神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?)
⇒ 神=>방향/목적이 전제. "죄"라는 개념을 통해 이상향/방향/목적을 추리. 막 10:52, 길에서 예수를 따르다 => 길/도(道), 마땅히 서야/가야할 자리

2. 문제점. 누구의 눈에 죄인가?

- 로마 vs. 하느님 나라. 로마제국(혹은 국가)에 대항하는 것=>죄/반역죄 (Q. 똑같은 사상(복음)/행위--예를 들어, 예수의 삶과 가르침--가 로마제국과 하느님 나라에서 같은 평가를 받을까?)
- 어거스틴의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, 원죄. 곧 아담/이브. 죄의 전가=>롬 5:12.
 - 질문. 왜 나와 상관없는 죄를 감당해야 하나?
 - 백번 양보해도 잘 되면 내 탓, 잘못되면 조상 탓.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지 못한다.

3. 죄, 다시 읽기

- 회개하려면 그 대상/상황이 있어야 하는데, 이를 죄로 정의한다.
- 월터 왕크는 그의 책 «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»에서,
 - 악마=>"거룩한 소명(召命)을 배신해 버린 제도와 구조의 실제적 영성"으로, 지배체제란 "권세들의 전체 네트워크(연결망)가 우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"(p. 35)으로 이해.
 - 육체를 따라 산다는 의미는--우리 말로, 죄란--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, "지배체제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자신"(p. 113); "'타락'이란 단지 우리 모두가 지배체제의 조건들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"(128).
 - 이런 타락은 신화적인 것이니, 즉, 언제나 현재적인 것이란 뜻이다 (135).

결론. 죄란 하느님의 '뜻'에 어긋나거나 대치하는 상황을 가리킨다.

- 하느님의 '뜻'을 벗어나(חַטָּא/ἁμαρτάνω) 다른 이--다른 신, 혹은 다른 가치관--의 뜻을 따르는 상태/마음가짐(정체성)과, 선택/행위(행동윤리) 일체를 포함.
- 구약시대에는 뉘우치, 신약시대에는 로마제국으로 상징. 두 가지 공통점=> 네 하느님이 누구인가?(당시의 언어) 오늘날의 말로는, 네 가치관/복음이 무엇인가이다.
-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의 가치관/복음을 떠나 다른 가치관/복음을 쫓는 행위가 "죄"이다. 고로,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--그들은 교회 밖에 있다--회개한 이들의 모임이다.
- 이렇게 볼 때, 죄는 (역사적 의미의) '원죄'보다 (신화적 의미에서) 더 뿌리 깊고 더 가까이 우리주변에 있다.